

한 겨울의 따뜻한 '피아노 연탄'



440Hz가 M. Wilberg의 '카르멘 판타지'를 8 hands for 2 piano로 연주하고 있다.

'따뜻한 연탄'이 공연가를 달군다. 연주자들이 나란히 앉아 연주하는 것을 '연탄'이라 한다. 서로의 온기로 피워내는 '피아노 연탄곡'은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 더불어 연주하는 정겨움과 화려한 기교를 느끼게 한다.

국제표준음고에서 착안, '스탠다드하고 안정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취지를 팀명에 녹인 피아노 앙상블 '440Hz(희장 김동영)'. 이들이 창단 연주회를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440Hz는 가장 안정적인 음높이를 표현한다는 뜻에서 1939년 런던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음고'로 지정됐다. 만일 자연 단음계 'A'를 440Hz로 규정한 표준 음고에 변동이 생긴다면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불협화음을 들려줘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

'대학생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음악적 성향, 가치관, 스타일이 비슷한 동료끼리 의기투합했어요. 두 대 이상의 피아노를 연이어 배치하고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앉아 '연탄곡' 등을 들려주는 것이 저희 스타일입니다. 하나의 건반악기를 둘 이상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하기 때문인지 팀원 간 소통과 호흡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요'

440Hz 소속 피아니스트 최안수(32) 씨의 말에서 팀원을 향한 믿음과 강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지역에서 오랜만에 90년대 초년생 피아니스트들

두대의 피아노 네명의 연주자

김동영·최안수·강한나·최한별

피아노앙상블 '440Hz' 창단연주회

19일 광주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이 주축이 되는 피아노 앙상블 창단 소식에 그저 반갑다.

최 씨는 광주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블로뉴 국립음악원 실내악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팀의 리더 김동영(32) 피아니스트는 광주대 음악학과 등을 졸업 후 국민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강한나(여·31)는 광주대 음대,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했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호남예술계 등에서 입상한 최한별(여·31) 피아니스트도 함께한다. 광주에서 수확한 피아니스트들만으로 팀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최 씨에 따르면 440Hz라는 팀명은 표준 음고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4인의 피아니스트가 모여 40개의 손가락으로 연주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포함한다. 이들은 연탄곡 레퍼토리를 주로 선보이고 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피아노 배틀 씬으

로 잘 알려진 연탄곡은 'piano 4 hands' 또는 '4 hands for 1 piano' 등으로도 부른다. 여기에 6 hands, 8 hands 등 여러 편성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있다.

440Hz는 두 대의 피아노를 네 명이 연주하는 '8 hands for 2 piano'를 비롯해 다양한 시도를 접목, 피아노로만 구성된 앙상블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리듬악기 등 없이 건반악기만으로 앙상블을 꾸렸지만, 오케스트라적인 느낌까지도 자아내고 싶다는 포부가 느껴졌다.

건반악기 단일 구성만으로도 어떻게 풍부한 오케스트라적 선율을 들려주려 하는지 물었다. 최 씨는 "네 명의 연주자가 각각의 색깔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론 어우러지면서 피아노 앙상블 이상의 '뽕부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공연은 안톤 아렌스키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1번'이 막을 연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연탄곡의 화려함이 깃들여있는 곡이다.

이어 피아졸라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일련 테마의 판타지 for 8 hands'를 들려줄 예정이다.

비틀드 루토슬라프스키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파가니니 주제의 변주곡', 전래동요 두꺼비를 변주해서 만든 김수아의 '두꺼비 변주곡' 등도 울려 퍼진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생성과 소멸로 이어지는 알고리즘

노정숙 '공백의 그림자 VI' 전, 27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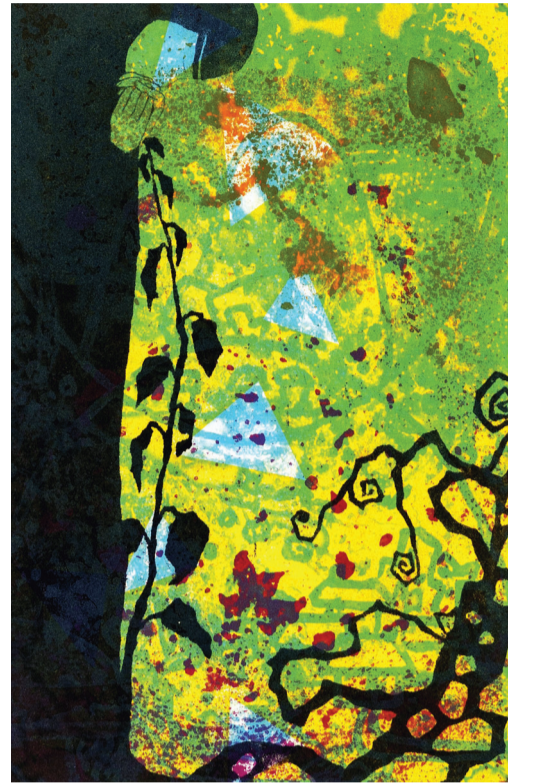
목판 등에 형상을 새긴 뒤 그 위에 잉크를 입혀 종이나 천 등에 찍어낸 것을 판화라 한다. 방식과 재료 등에 따라 독특한 질감과 효과를 발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독립된 예술 장르로 작가들이 즐겨 활용하고 보급됨으로써 미술 애호가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노정숙 작가는 판화를 매개로 자신만의 세계를 열어가는 예술가다. 그의 작품에서 엿보이는 실험 정신은 새로운 창작을 향해 나아가는 단초가 된다. 특히 그는 '판화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판화화는 철을 붓에 묻혀 판을 찍듯 형상을 그리고, 그 철을 부식시켜 변화하는 색과 형상을 고정시키는 장르다.

노 작가의 초대전 '공백의 그림자 VI'가 전남대 박물관(관장 정금희)에서 열린다. 오는 27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초대전에서는 모노톤의 초기작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동판의 소멸이라는 판화적 기법으로 만들어진 공백을 회화적인 색채로 그려내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생성과 소멸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의 세계는 작가가 추구하는 예술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금희 전남대 박물관장은 "노정숙 작가의 이번 전시는 판화의 매력과 특성을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판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가



'대지의 여신'

의 실험정신과 아울러 반복과 소멸,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법칙을 깊이있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들레 씨 '시간의 원을 그리다'

최항규 개인전, 30일까지 고흥 도화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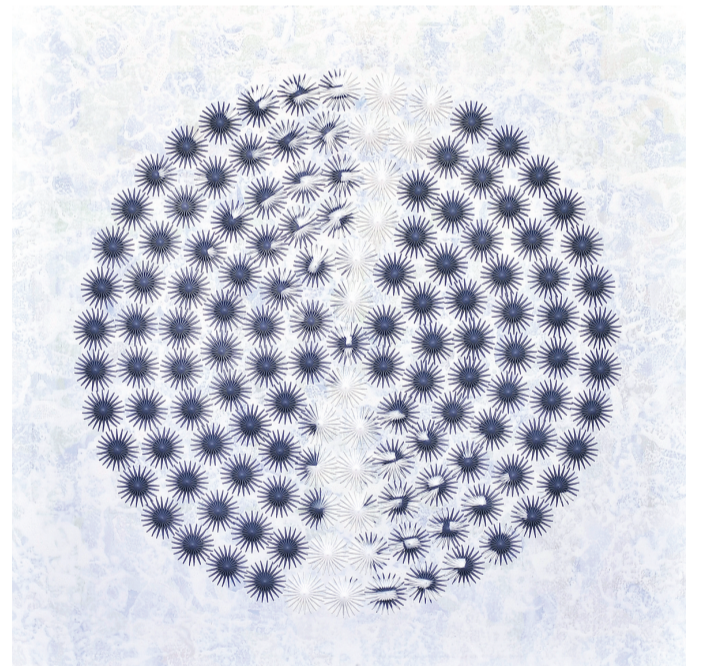
우리나라 들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식물 가운데 하나가 민들레다. 특히 꽃이 진 뒤 아주 작은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예술 분야에서 이미지나 상징으로 차용하기도 한다.

최항규 작가는 이번 자신의 작업 이미지를 '민들레'에서 착안했다. 그동안 자연에서 관찰한 소재를 토대로 자신만의 조형성을 구현하는 실험을 지속해왔다.

최 작가가 전시가 오는 30일까지 고흥반도 끝자락 도화현미술관(관장 박성환)에서 열린다.

'시간의 원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열한 번째 개인전으로 모두 25점이 출품됐다. 전시는 2023 도화현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으로 기획됐으며 작가는 면밀한 관찰 등을 통해 새로운 형상이 재창조되는 순간을 포착했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정교하면서도 아름답다. '시간의 원', '어우러짐'이라는 작품이 주는 세세한 미와 균형감은 고도의 집중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민들레 씨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규칙적이면서도 분할적인 이미지는 보는 이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시간의 원'

박성환 관장은 "선명한 오브제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배경은 자연이 지닌 엄정함과 결정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며 "작가는 그의 세밀한 작업과정과 결실을 통해 우리들 삶의 여정은 물론 조화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평한다.

한편 최항규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인천 아시아아트쇼, 서울아트쇼, The Affordable Art Fair (홍콩, 싱가포르) 등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작곡가들, 환경문제에 '물음' 건넨다

작곡가 동인 단체 '뮤직노마드' 연주회, 19일 전남대 민주마루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환경보호 문제를 초점화해, 창작곡으로 경각심을 전하는 연주회가 펼쳐진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곡가 동인 단체 뮤직노마드(예술감독 정현수)가 현대창작음악 연주회 '시절유감 2023 환경시리즈 1-물음'을 선보인다.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공연의 제목에서 주지하듯 공연은 '물 부족'과 '가뭄 현상' 등 환경문제를 화두에 올려 인류에게 자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창작곡을 들려주기 전 영상상 상영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유복음은 'Bricks II'를 들려주며 나혜성, 박승원, 조사무엘이강나루의 '물길'을 연주한다. 이어 김하늘, 박승원, 황은홍과 엄광용, 이후성 등은 환경진의 'Water by thirst'를, 나혜성 등은 강보란



뮤직노마드의 지난 9월 공연 장면.

<뮤직노마드 제공>

작곡가의 '말:음'을 들려준다. 이은주의 'Hor bitte, auf!'와 정현수 작곡가의 '물이 마른다'도 레퍼토리에 있다. 지휘에 이현민.

정현수 예술감독은 "송년에 개최하는 이번 공연이 완성도 높은 창작음악의 세계를 보여주는 한편, 환경보호의 메시지와 경각심을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연을 감상하며 새해에 살아갈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초대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 모색

ACC, 2024년 프로그램 개설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분야를 경험하며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ACC에 개설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이 마련한 '2024년 ACC 청소년 단체 프로그램-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과 'ACC 평화 이야기보관소'가 그것.

먼저 내년 4-6월과 9-11월에 운영될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은 ACC와 관련된 문화예술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회당 150명 내로 참여 가능하다.

내년 5월에는 'ACC 평화이야기보관소'도 운영된다. 스마트 도구를 이용해 종교분쟁, 난민 문제 등 각국에서 일어난 갈등의 역사를 모티브로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다. 100명 내의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액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와 '꿈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